

# 전북에서 美 시애틀로 책으로 잇는 국제 교류

전북교육청, 시애틀 한국교육원과 한국어 기반 북큐레이션 운영

한국어·한국문화 세계 확산… 교육·문화 융합형 교류 모델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미국 시애틀 한국교육원과 함께 지난 12~20일 포틀랜드 파워북스(Powell's Books)에서 한국어 기반 북큐레이션을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는 한글날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미국 현지 일반 시민과 한국어 교원·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가치를 직접 소개하는 자리였다.

세계 최대 독립서점인 파워북스에서 열린 북큐레이션은 미국 내 일반 독자들에게 한국문화의 깊이와 매력을 전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추천한 도서 100권이 전시됐으며,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전북의 수석교사와 사서의 해설이 곁들인 한국어 수업·독서 문화 체험에 참여했다.

또한 한국어 기초 수업, 도서 낭독회, 독자와의 대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미국 현지 교육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도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미국 현지 한국어 교사들은 “한국문화의 다양한 주제와 서정성을 통해 학생들이 다른 문화에 대

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교수법을 수업에 적용해 보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유정기 교육감관한대행은 “이번 북큐레이션은 단순한 도서 전시를 넘어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를 매개로 한 교육·문화 융합형 국제교류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며 “한글과 한국문학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어 교육과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미국 시애틀 한국교육원과 함께 지난 12~20일 포틀랜드 파워북스(Powell's Books)에서 한국어 기반 북큐레이션을 운영했다.

## 남성고 배구부, 전국 최강 입증

전국체전서 경북 현일고 세트스코어 3-1로 이겨… 우승 차지

남성고등학교(교장 박종우)가 제 106회 전국체육대회 배구 남자 18세 이하부 결승에서 경북 대표 현일고등학교를 세트스코어 3대 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남성고는 이날 부산 동래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경기에서 강력한 서브와 조직적인 수비, 빠른 공격 전개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트스코어 1대 1 상황에서 맞이한 3세트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블로킹과 공격 성공률을 높이며 세트를 가져왔다. 이어진 4세트에서 상대의 추격을 완전히 끊어내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냉정한 경기 운영과 단단한 팀워크가 빛난 경기였다.

특히 이번 성과는 남성고의 체계적인 훈련 지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문예체육진흥과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가능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대회 전



남성고등학교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배구 남자 18세 이하부 결승에서 경북 대표 현일고등학교를 세트스코어 3대 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훈련 환경 개선과 선수 컨디션 관리 지원을 이어왔으며, 대회 기간 중에는 현장 상황실 운영과 선수단 안전·심리지원 등 세밀한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한편 남성고는 이번 금메달을 계

기로 선수 개개인의 기술 향상과 팀 조직력 강화를 위한 전문 훈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북 배구의 발전을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 비전대 “졸업작품전·비전 대동제 동시에 연다”

내일 나래관 일원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오는 23일 나래관 일원에서 산학협력단 주관 'AID 창의융합혁신 RISE-UP VISION EXPO(졸업작품전)'와 정진 총학생회 및 교학처업무 주관 '2025 비전 대동제'를 동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의 산학협력 성과와 학생 문화가 어우러지는 '하루의 통합 축제'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캠퍼스로서의 전주비전대학교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먼저, 졸업작품전(VISION EXPO)은

첨단산업 기반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 융합을 통해 학생들의 직무·창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다.

대학 전 학과가 참여해 △스마트모빌리티 △DX융합기술 △스마트헬스케어 △유엔라이프케어 △K-컬처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며, 입시·진로체험존과 학술발표, 기업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행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나래관을 중심으로 야외무대·부스, 성실관·창조관 등 각 학과 전시 공간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9시 30분까지

정진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비전 대동제'가 혁신관 앞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학생들의 꿈 위에 바른 길을 놓고, 진취의 꽃을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체험과 공연이 펼쳐진다.

행사는 △모투인형 만들기 △불량식품 부스 △오락실 체험존 △추억의 음식 부스 등 다양한 부스가 마련됐으며, '총장님이 쓴다! 치킨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본 행사는 오후 6시 30분 '복면가왕' 경연을 시작으로 오아시스 댄스부·치어리더 공연, 인기 래퍼 스킨비라운(Skinny Brown)의 축하무대가 이어진다.

/장은성 기자

## 빛 투과·색상까지 정밀 제어 차세대 스마트윈도우 소재 개발

전북대 정광운 교수팀

전북대학교 정광운 교수 연구팀(공과대학 고분자나노공학과·대학원 나노융합공학과)이 파이(π) 확장 바이올로겐 기반 전기변색 물질을 새롭게 합성하고 이를 활용한 차세대 스마트 윈도우 소재를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정광운 교수



김 후 후안 연구원

이번 연구는 에너지 절감형 광학 기술 분야에서 주목받으며 재료화학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 'Advanced Materials' (IF 26.8, 상위 2.3%) 2025년 10월 9일자 표지논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전기변색 소재는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 산화·환원 반응을 유도해 색상과 투과율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 물질로, 에너지 효율이 요구되는 건물이나 자동차, 전자 디스플레이, 보안 광학 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에 따라 투명, 반투명, 유색 전환이 가능한 고기능 스마트 윈도우 제작이 가능해졌다.

개발된 소재는 실제 실험을 통해 5V 이하의 낮은 구동전압, 세 가지 색상 선택 구현, 광중합 기반 제조로 열·기계·화학적 안정성 향상 등 상용화 수준의 실용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김후후안 박사과정생은 “바이올로겐 기반 전기변색 스마트 윈도우는 5V 이내의 적은 에너지로도 구동이 가능하고, 광중합을 통해 열적, 기계적, 화학적 안정성도 크게 향상된 소재”라며 “이번 연구는 기존 전기변색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 절감형 광학 시스템의 핵심 기술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성과로서 향후 상용화 연구를 통해 건축 및 보안 광학에서의 실질적인 응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 연구팀의 김후후안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주도한 이번 연구는 전압 인가만으로 색상과 투과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신개념 전기변색 소재를 구현한 것이 핵심 성과다.

기존 전기변색 소재는 단순 색 변화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파이 확장 바이올로겐 기반 전기변색 물질의 분자 구조를 정밀하게 설계하고, 나노 수준에서의 배열 제어 기술을 적용해 빛의 편광을 활용한 선택적 투과도 제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

을 따라 투명, 반투명, 유색 전환이 가능한 고기능 스마트 윈도우 제작이 가능해졌다.

개발된 소재는 실제 실험을 통해 5V 이하의 낮은 구동전압, 세 가지 색상 선택 구현, 광중합 기반 제조로 열·기계·화학적 안정성 향상 등 상용화 수준의 실용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김후후안 박사과정생은 “바이올로겐 기반 전기변색 스마트 윈도우는 5V 이내의 적은 에너지로도 구동이 가능하고, 광중합을 통해 열적, 기계적, 화학적 안정성도 크게 향상된 소재”라며 “이번 연구는 기존 전기변색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 절감형 광학 시스템의 핵심 기술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성과로서 향후 상용화 연구를 통해 건축 및 보안 광학에서의 실질적인 응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중견연구지원사업,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과 교육부 4단계 BK21(두뇌한국21)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장은성 기자

## 함께 그린(Green) 오늘

전북교육청, 28일 학교 환경교육 한마당 개최

체험·전시·강연·기후행동 실천 사례 등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8일 국립전주박물관 일원에서 '2025 학교 환경교육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그린(Green) 오늘, 함께 만드는 내일’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학교 환경교육 지원 연계를 통한 탄소중립 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학생·교원·교육전문직원 등이 함께하는 환경교육 실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참가자 중심의 자원순환·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환경교육의 공동체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번 행사는 현수막 없는 부스, 예코백·다회용기 사용, 탄소중립 실천 약

속 챌린지, QR코드를 활용한 스탬프인증 등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기후위기·생물다양성·자원순환·에너지·지속가능성 등 탄소중립 교육과정의 5대 영역을 살린 내용으로 구성, 참가자들의 탄소중립 실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후행동 실천 사례 발표, 환경폴넵벨, 버스킹 공연 등으로 진행되는 ‘목소리마당’ △환경교육학살공동체·학교·유관기관 등이 운영하는 ‘체험전시부스마당’ △교원,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한 나눔마당(전문가 특강) △환경영양화마당 △실천인증마당 등이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성취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25 중등 성취평가 모니터링단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 전주교대, 교내 수업실기대회 시상식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제13회 교내 수업실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수학 6팀, 영어 5팀, 과학 6팀 등 총 17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그 결과 금·은·동상 각 3팀씩 총 9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중 금상을 수상한 3팀은 제13회 전국교대 좋은수업 탐구대회에 전주교

육대학교 대표로 참가해 수업실기능력과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병춘 총장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발표하는 과정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한층 더 다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교육을 선도할 교사 양성을 위해 더욱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외국인 유학생

대학생활 슛폼 영상 공모전

전주대학교(총장직무대행 권순태)는 21일 국제교육관에서 '외국인 유학생 대학생활 슛폼(Short-form) 영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속 외국인 유학생들의 일상과 문화를 온라인 영상으로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전에는 6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심사 결과 대상은 미얀마 출신 뽀뽀 학생이 차지했으며, 금상은 페암생문자(미얀마), 은상은 잔타이션·카인유이(베트남), 장려상은 수양(중국) 학생의 11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학생안전관리

학생안전사고 예방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일 본청 강당에서 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학생안전관리 및 학생안전사고 예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25년 학생 안전교육 중점 추진 방향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단계별 대응체계 안내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과 학교안전지원시스템 활용 방법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다음 달 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흡연예방교육

담당교사 대상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21일 관내 흡연예방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종담배와 신종마약의 연결고리’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연수는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전자담배와 마약류 사용 간의 연관성을 분석, 향후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의 우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자담배에 포함될 수 있는 변종 액상 성분과 신종마약으로의 확산 가능성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방향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 지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장은성 기자

기전대, 전주비빔밥축제 참여

전주기전대학(부총장 조덕현)은 '2025 전주비빔밥축제'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오는 24일부터 3일간 전주 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비빔'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주제로 비빔마당, 비빔 전시존, 비빔 플래존 등 세 개의 주요 공간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전주기전대학은 이번 축제에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위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세계비빔존' 및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전주의 글로벌 식문화 가치를 확산하고, 특히 호텔외식조리과 교수진과 학생들이 참여해 세계 각국의 대표 비빔요리를 직접 선보이는 체험형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유네스코 전주 종이액자 만들기, 네일아트·타투스티커 체험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장은성 기자